

기독교역사 특강 - 16강

I. 초대교회의 이단

초대교회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이른 시기부터 진리의 경전(canon veritatis)과 신앙의 규범(regula fidei)이 있었다. 특히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과 구원 사역이 계시된 절대 진리의 책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규정된 신앙 원리의 책이었다. 특히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기록한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기준과 토대였다. 초대교회의 구약은 더 이상 유대교만의 경전이 아닌, 신약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야로 예언한 계시의 책이었다.

이단 (Heresy = ἁερέσις)이란 무엇인가? 이단 즉 하에레시스(Haeresis)는 ‘취사선택’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특별한 집단 즉 당파’를 가리키는 중성적 의미로 사용했다. 예컨대, 사두개인의 당파(행 5:17), 바리새파(행 15:5), 나사렛 이단(행 24:5)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행 24:14), “이 파에 대하여는”(행 28:22) 등의 용례가 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기독교도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어떤 대상을 위해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편당”(고전 11:19), “이단”(갈 5:20) 등이다. 또한 바울은 이 단어를 기독교 교리를 오도하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딤후 3:10),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1) 등이다.

초대교회의 교부들 가운데 기독교 이단에 대표적인 저술은 이레네우스(Irenaeus)의 <이단논박>(Adversus haereses), 히폴리투스(Hippolytus = Ἰππόλυτος)의 <모든 이단 논박>(Refutatio omnium haeresium),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의 <이단자들의 항변에 관하여>(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과 <프락세아누스 논박>(Adversus Praxean)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레네우스는 이단을 “겉으로는 교회의 교인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기꾼이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정의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교회가 세상적인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세속화를 경고하면서 기독교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이단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진지하지도 않고 권위도 없으며 규율도 없는 이단이 얼마나 공허하고 세속적이며 인간적인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로는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 몬타누스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이단들을 기독교 교리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초대교회의 이단 출현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형성하는 일에 지대하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단의 출현으로 형성된 교리는 크게 5가지 즉 삼위일체, 기독교론, 계시론, 교회론, 구원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다섯 가지 교리를 초대교회 이단들의 특징과 비교할 것이다.

1.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4-5)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뿐인 신, 즉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다. 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시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자칭 ‘인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하늘 아버지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심으로써 한 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셨고, 또한 자신이 보내실 다른 보혜사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약속하심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셨는데, 이것이 곧 삼위일체 교리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복수로 사용된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אֱלֹהִים)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표현된다.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수의 ‘여호와’이시면서 복수의 ‘엘로힘’이시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단수이면서 동시에 복수다. 이 신비가 신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유일신론의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신론의 형식과 내용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일신의 존재 유무를 증명하는 모든 이신론적인 유일신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실상 무관하며 다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논의될 수 있고 논의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유일신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니다. 초대교회의 삼위일체 논쟁은 이런 관점을 반영한다.

1-1. 단일신론

일체 즉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할 경우 군주신론(Monarchianism, 단일신론)으로 빠지기 쉽다. 군주신론이란 ‘한 사람의 지배’를 의미하는 ‘모나키아’(monarch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신임을 주장하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삼위일체 이단 가운데 하나다. 군주신론은 역동적 군주신론(Dynamic Monarchianism)과 양태적 군주신론(Modalistic Monarchianism)으로 구분된다.

역동적 군주신론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양자론(Adoptionism, 양자설: 한 분 하나님께서 인간 그리스도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심)이나 유출설(Emanationism, 발출설: 만물은 일자(το ἐν)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것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양자론과 유출설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인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한 분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개념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양자론이란 성자가 성부의 양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인간이라는 주장인데, 그리스도를 오직 ‘사람의 아들’ 즉 ‘인간’으로만 간주한 에비온파(Ebionites)와 연관이 깊다. 1-2세기 초에 활동한 에비온주의는 나사렛 예수를 두 번째 엘리야 혹은 새로운 유대 선지자나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유대교 전통에 천착한 이단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의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출설이란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의 영향을 받아 성자가 성부로부터 유출된 것이므로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이론이다. 양자론이든 유출설이든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이러한 역동적 군주신론의 대표자로는 3세기에 활동했던 로마의 테오도투스(Theodotus of Rome)와 사모사타의 바울

(Paul of Samosata)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동적 군주신론은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고 주장한 아리우스(Arius) 이단과도 상통한다.

양태적 군주신론은 삼위가 신적 현현의 세 가지 방식(tres modi)이라는 주장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로는 성부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즉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곧 성부수난설(patripassionism)이라는 이단적 교리로 귀결된다. 양태적 군주신론의 대표주자는 3세기 신학자 사벨리우스(Sabellius)이다. 여기서 삼위일체 이단인 사벨리우스주의(Sabellianism)라는 용어가 파생했다. 사벨리우스는 주장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하다. 이들은 세 가지 명칭이지만, 그 명칭이 가리키는 실재는 하나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세 하나님을 가지는 것인가?”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성부를 태양에, 성자를 광선에, 성령을 가열능력과 같은 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양태론이다.

사벨리우스는 경륜(oikonomia) 개념을 도입하여 삼위일체를 계시역사적 현현으로 해석했으며, 또한 삼위일체를 신의 경륜 또는 신의 계획이란 뜻에서 ‘경륜적’인 것으로 보았다. 양태론인 사벨리우스주의(Sabellianism)의 가장 심각한 교리 문제는 십자가에게 못 박혀 죽으신 성자를 아닌 성부와 동일시하는 성부수난설이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부 하나님이라는 주장이다.

1-2. 삼신론(성부, 성자, 성령) 혹은 사신론(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각각 독립된 세 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삼신론이며, 이 세 분이 또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신론이다. 즉 사신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과 또한 삼위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각각 계신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에서 개체를 중시하는 중세의 유명론적 사고 경향은 삼위일체론을 삼신론이나 사신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1-3. 삼위일체 교리의 논쟁 역사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논쟁을 흔히 ‘이오타’ 논쟁이라고 부른다. 이유는 논쟁의 핵심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신적 본질이 동일한지 아닌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즉 동일본질을 의미하는 ‘호모우시오스’(ὁμοούσιος)인가 유사본질을 의미하는 ‘호모이우시우스’(ὁμοιούσιος)인가의 문제였는데, 이 두 단어의 차이는 헬라어 철자 ‘이오타’(ι) 하나였던 것이다.

물론 그 논쟁 내용이 이처럼 간단한 문제였던 것은 아니지만 논쟁의 핵심은 성자가 성부와 완전히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성부의 선성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신가라는 문제로 요약 가능하다. 이런 주장과 달리 성부와 성자의 신성이 서로 다르다는 “상이본질”(ἀνόμοιος)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

1-3-1. 아리우스 이전의 서방교회 삼위일체론

2세기 말 리옹(Lyon)의 감독이었던 이레네우스(Irenaeus)의 삼위일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오이코노미아’(οικονομία)라는 개념, 즉 구원의 경륜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신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로고스’를 창조 사역 이전부터 성자와 동일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낳으신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이레네우스는 성부를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성자를 만물을 관통하시는 분으로, 성령을 만물 안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했는데, 이것은 마치 그가 삼위의 관계를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전하게 정의하기도 했다. “창조되지 않은 성부 하나님, 제약되지 않으며 불가시적인 한 분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차서 만물을 자신에게 회복시키고자 인간 사이에 한 사람이 되었고,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교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 면전의 세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 인간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부여된 성령...”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 즉 성부의 지식은 성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성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부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성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자가 섬기고 성령을 나누어주신다.”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하여 이레네우스 다음으로는, 3세기 서방교회에서 활동한 ‘라틴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터툴리안)의 견해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삼위 혹은 삼위일체로 이해되는 용어인 라틴어 ‘트리니타스’(trinitas. 삼위이심)를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용어들인 ‘습스탄티아’(substantia. 본질)와 ‘페르소나’(persona. 위격)와 같은 라틴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구원 경륜의 세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 본질이고, 세 측면을 구별하는 것이 위격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가 오이코노미아(oikonomia)라 부르는 경륜 아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마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의 신비가 보존되는 것처럼. 그는 그것[경륜]의 하나이심(unity)을 삼위이심(trinity)으로 전개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셋으로 배열하시지만, 셋은 신분(status)이 아니라 단계(gradus)에 있어서, 본질(substantia)이 아니라 모양(forma)에 있어서, 능력(potestas)이 아니라 외형(species)에 있어서 [셋이요], 하나의 본질과 하나의 신분과 하나의 능력에 속한다.”

1-3-2. 아리우스 이전의 동방교회 삼위일체론

2-3세기에 활동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학자 오리게네스(Origenes. 오리겐)는 삼위보다는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면서도 성자가 성부와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는 “동일본질이신분”(ὁμοούσιος)로 묘사했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세 실체”(treis hypostaseis)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리게네스의 삼위일체 개념을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이후 우파와 좌파로 나뉘었다.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오리게네스 우파의 대표자는 그레고리우스 타우마투르고스(Gregorius Thaumaturgos)인데,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삼위(trias)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만들어진 것은 없다. 그리고 다른 어느 것에도 종속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삼위 안에 있지 않았던 것이 덧붙여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지 않으며, 성령은 아들보다 열등하지 않다.” 이것은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에 수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오리게네스 좌파의 대표자는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Dionysius of Alexandria)인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아들은 본질상 아버지와 이질적이다... 그래서 아들은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낳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가 성자를 낳았기 때문에 성자가 출생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며 유출설과 유사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계급적일 수밖에 없다.

1-3-3. 아리우스(Arius)와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의 논쟁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의 유사성을 언급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Alexander)의 설교를 듣고 이것을 사벨리우스주의(Sabellianism)의 양태론으로 간주하여 반대했다. 감독 알렉산더와 맞서 논쟁을 시작한 장로 아리우스는 다른 논쟁자와 상대해야 했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집사 아타나시우스였다. 오리게네스의 책을 통해 좌파적 견해의 영향을 받은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적 본질이 동일한 것이 아닌, 각기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므로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고, 또한 성령은 성자의 피조물이다.

아리우스는 한 분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을 강조했다. 즉 하나님은 “일자(το ἓν)”요, 모든 피조물의 유일 근원이며, 그분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에 반대하여>라는 자신의 글에서 아리우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는 아니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있었고, 아직 아버지가 아니었을 때가 있었다. 오직 후에야 아버지가 되었다. 아들은 언제나 존재하지는 않았다. 무릇 피조물은 무에서 나온다. 따라서 하나님의 로고스도 무에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 분 하나님은 본래부터 성부와 성자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때문에 성부가 되셨고, 성자는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즉 성자는 일자이신 성부와 동일본질일 수 없고, 다른 본질(heteroousios)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리우스와 반대로 아타나시우스는 말씀이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은 설사 그가 발생된 존재임을 뜻하는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아들과 아버지는 그들이 공유하시는 독특한 본성과 하나의 신성이라는 동일성을 통하여 하나가 되신다.” “그들[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한 물건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는 것도 아니고, 한 물건을 두 번 부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분이 한때는 아버지로, 다른 때에는 자신의 아들이 된다는 주장으로 사벨리우스는 이단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둘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동시에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며, 아들은 아들이고 동시에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본성은 하나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구원론으로 설명했다. 즉 죄는 용서에 의해 극복되고, 죄의 저주인 죽음은 새로운 생명에 의해 극복된다는 것이다. 구원이란 유한성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 그는 이것이 참 사람으로서 죄의 저주를 몸에 받고(죽음), 참 신으로서 죽음을 이긴(부활)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의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말씀이 창조주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안에서 인간의 육체가 새롭게 되고 신격화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피조물의 형체, 곧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만일 말씀이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육신이 되셨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면,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말씀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으로 만들어지지 위해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Αὐτὸς γὰρ ἐνηθρώπησεν, ἵνα ἡμεῖς θεοποιηθῶμεν)-[성육신에 관하여(De Incarnatione)], 54) 이것이 아타나시우스의 신격화

(deificatio) 교리이다.

이러한 아타나시우스 구원론적 논증을 삼단논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그 어느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2. 아리우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중 하나이다. 3. 따라서 아리우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1.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신다. 3.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동일한 본질이라는 사상을 최초로 발전시킨 인물이다.

1-3-4. 니케아 공의회(Concilium Nicaenum. 325. 5. 20-7. 25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황제는 기독교가 교리적인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자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로마제국 전역에 있는 교회의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는데, 이것이 곧 최초의 세계기독교총회인 니케아공의회다. 이 공의회에는 318명의 동서방 교부들이 참여했다. 여기서 아리우스는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결국 정죄되고 추방되었다. 이 공의회에서 작성되고 채택된 신앙고백을 니케아 신경(Symbolum Nicaenum. 325년)이라고 부른다. 이 신경은 황제에 의해 로마제국의 국법으로 공포되었는데, 삼신론(Tritheism)과 사벨리우스주의(Sabellianism)의 중간 입장을 취한다.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분이시며(γεννηθέντα ἐκ τοῦ Πατρὸς) 독생자이다. 즉 아버지의 본질로부터(ἐκ τῆς οὐσίας τοῦ Πατρὸς) 나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며,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출생된 분이시고 창조된 자가 아니시다. 아버지와 동일본질(ὁμοούσιον τῷ πατρὶ)이시며, 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케 되었다. 그는 우리 사람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시고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

1-3-5. 세 명의 갑바도기아 교부들

삼위일체 교리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 명의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대 바질(Basil the Great = Basilius of Caesarea. 약 330-379), 니사의 그레고리우스(Gregory [Gregorius] of Nyssa. 약 330-395. 대 바질의 동생),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Gregory [Gregorius] of Nazianzus. 약 390년 사망)이다. 이들은 세 위격의 구별, 즉 세 실체를 강조했다. 동시에 동일본질 혹은 동일한 신성을 주장했다. 이것을 위해 플라톤의 보편이론 사용하여 삼위일체 안의 한 본질은 보편적인 것으로, 세 위격은 개별적인 것으로 설명했다. 즉 삼위일체 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 사람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인간성을 공유한다는 방식의 비유로 설명했다.

이들은 니케아공회 이전에 구분 없이 사용되던 용어인 “본질”(οὐσία = ousia)과 “실체”(ὑπόστασις = hypostasis. 본체)를 구분했다. 헬라어 ‘위포스타시스’는 ‘얼굴’을 의미하는 ‘프로소폰’(προσώπων)과 같은 의미로 종종 사용되었는데, 헬라어 ‘프로소폰’은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로 번역되었다. ‘본질’은 신성 그 자체를 표현하는 기술적 용어였고, ‘실체’는 신

적 본질의 특수한 형태, 즉 이 신적 본질의 특수한 형태가 개체적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각 위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기술적 용어였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성부와 아들과 성령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κοινόν)은 신성(ἡ θεότης = deity, divinity)과 본질(οὐσία = ousia)이다. 이 신성과 본질은 하나다. 그러나 이 둘을 서로 구분되게 하는 것은 실체(ὑπόστασις)이고 속성(ἴδιον)이고, 위격(προσώπων)이며, 따라서 이것은 셋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개별성은 비출생이다. 그러나 아들의 [개별성] 출생이다. 그러나 성령의 [개별성] 발출이다.”(Ἴδιον δὲ Πατὴρ μὲν, ἡ ἀγέννησία· Υἱοῦ δέ, ἡ γέννησις· Πνεύματος δέ, ἡ ἔκπεμψις.) 즉 아버지는 근원(ἄτιμος)이시고, 아들은 사역을 수행하시는 분(δημιουργός)이시며 성령은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분(τελειοποιός)이시다. 이들이 구별한 세 위격들 사이의 일체와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 후대의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는 “상호침투” 혹은 “상호교통”으로 번역될 수 있는 “페리코레스시스(περιχώρησις)”인데, 이 용어는 6세기경에 그리스 신학자 다마스쿠스(Damascus)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페리코레스시스는 라틴어로는 ‘키르쿠민케시오’(circumincessio) 혹은 ‘속성의 교류’로 번역할 수 있는 ‘코무니카티오 이디오마툼’(communicatio idiomatum)이며, 영어로는 역시 ‘속성의 교류’로 번역할 수 있는 ‘머추얼 인터퍼니트레이션’(mutual interpenetration) 혹은 ‘머추얼 코인히어런스’(mutual coinherence)이다.

1-3-6. 콘스탄티노플 공의회(Concilium Constantinopolitanum. 381. 5-7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두 번째 세계기독교총회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했으며 150여명의 동방교부들만 참석했다. 니케아 신경이 재차 확증되었고 아리우스파, 반아리우스파, 성령피조설주의자들, 사벨리우스파 등이 정죄되었다.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동방의 다른 지역의 총대주교들 보다 높여 로마 주교 바로 다음인 제 2인자의 자리로 격상시켰다. 콘스탄티노플 신경(Symbolum Constantinopolitanum. 381년)은 니케아 신경에 성령의 신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동방교회뿐만 아니라, 서방교회도 이것을 기본적인 신경으로 수용했다. 성령과 관련한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발출된 자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시다.(헬라어: καὶ εἰς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τὸ κύριον καὶ ζωοποιόν, τὸ ἐκ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υόμενον, τὸ σὺν πατρὶ καὶ υἱῷ συμπροσκυνούμενον καὶ συνδοξαζόμενον, τὸ λαλῆσαν διὰ τῶν προφητῶν. 라틴어: Et in Spiritum Sanctum, Dominum et vivificantem, qui ex Patre *Filioque*!] procedit, qui cum Patre et Filio *simul adoratur* [coadoratur] et conglorificatur, qui locutus est per prophetas.)”

위의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교리적으로 갈라놓은 필리오케(Filioque. 필리오커버) 논쟁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 논쟁으로 동방과 서방 간의 성령론은 확실하게 분열되었다. 동방교부들은 위의 구절을 “성자를 통해 성부로부터(a Patre per Filium)”로 이해한 반면에, 서방교부들은 “성부와 성자로부터(a Patre Filioque)”로 이해했다.

1-3-7.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교리

세 명의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세 본체를 강조한 반면에, hippo(Hippo)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 신학의 견해를 대표하는 신적 본질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헬라어 ‘우시아’(ousia. 본질)에 해당되는 라틴어 단어 ‘슈스탄티아’(substantia) 대신에 ‘에센티아’(essentia)를 사용했

다. 그는 헬라어 ‘우시아’(ousia)와 ‘히포스타시스’(hypostasis)의 내용적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과 일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각 위를 구별하지만 본질을 나누지는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흔적(vestigum)을 창조된 인간 속에서도 찾았다. 즉 기억(memoria)과 이해(intellegentia)와 의지(voluntas)가 그것이다. 또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즉 성부를 사랑의 주체인 “사랑하시는 분”(amans)으로, 성자를 사랑의 객체인 “사랑받는 분”(quod amatur)으로, 성령을 그 둘을 연결하는 “사랑”(amor) 그 자체로 이해했다. 그는 하나님의 최대 은사를 사랑 즉 성령(성부와 성자를 함께 묶는 사랑으로서의 성령)으로 보았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한다. 그것이 사랑의 효과이다. 따라서 성령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2.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 정통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vere Deus)이시면서 동시에 ‘참으로 인간’(vere homo)이시라는 고백이다.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한다.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뜻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시고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신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신성과 유한한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이심의 신성과 인간이심의 인성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는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라는 이성적 질문이 제기되었던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두 본성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성적 질문에 대한 모든 이성적 답변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결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두 교리에 관해서는 먼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유한한 인간의 겸손이 요구된다.

삼위일체 교리의 이단인 에비온파의 양자론, 아리우스의 유출설, 그리고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은 모두 기독교적인 이단이기도 하다. 양자론과 유출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 즉 참 신이심을 부정하는 이단적 교리인 반면에, 양태론은 가현설(Docetism) 이단으로 그리스도의 인성, 즉 참 인간이심을 부정하는 이단적 교리다. 가현설이란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영지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영체(=영적인 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지주의(Gnosticism)도 가현설 이단이다.

그리스도의 양성, 즉 신성과 인성에 관한 정통적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교리는 모두 기독교적 이단으로 규정된다. 이레네우스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에비온파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심을 변호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duae naturae) 문제를 최초로 다룬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도 역시 양자론과 양태론에 맞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하나의 인격(una persona) 속에서 혼합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이중적인 신분(duplex status)을, 즉 신과 인

간이신 예수님을 본다.” 이후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논쟁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를 중심으로 4-5세기에 격렬해졌다.

2-1.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 학파는 성경에 대한 풍유적이고 신비적 해석으로 유명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주의적이고 초자연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 즉 신성을 강조했다. 이 학파의 대표자들로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s Alexandrinus = Clemens of Alexandria), 오리게네스(Origenes. 오리겐),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키릴루스(Cyrillus = Cyril. 네스토리우스 이단 정죄의 일등공신), 아폴리나리스(Apollinaris of Laodicea), 유티케스(Eutyces)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세 명의 갑바도기아 교부들도 이 학파에 속한다.

키릴루스도 “성육신하신 로고스의 단일 본성”을 언급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천상의 신이신 예수께서 지상의 인간이 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되었는데, 이 연합은 인성이 신성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하나의 본성만이 즉 인간의 본성을 흡수한 신적 본성만이 존재한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θεοτόκος, 하나님을 임신한 자)라 부르는 개념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학파의 극단적 기독교론, 즉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기독교론은 아폴리나리스와 유티케스의 견해다. 아폴리나리스는 주장하기를, “한 아들은, 하나는 예배를 받게 되고, 하나는 예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된 신-로고스라는 한 가지 본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 현대 학자들은 이것을 “말씀-육신” 기독교론으로 부르는데, 이것을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 아폴리나리스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말씀을 입은 것은 인간성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이고,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은 신적 로고스로 대체되는 것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이 사라져버린다.

유티케스는 그리스도의 몸이 신격화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연합 이전에는 두 본성이었으나, 성육신 이후에는 두 본성이 아닌, 하나의 본성뿐이라고 주장하여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이것을 단성론(Monophysitism)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본성이 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변화기독교론(transformation-Christology)이라고도 한다. 유티케스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인간과 동일본질이시라는 것도 부인했다.

2-2. 안디옥 학파

안디옥 학파는 성경에 대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학파의 창설자는 2세기 사모사타(Samosata)의 루키아누스(Lucianus)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윤리적, 인격적 경향이 강하다. 역사적인 인간 예수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의 참된 인성과 실제성을 강조했다. 이 학파의 대표자들로는 다소의 디오도루스(Diodorus of T[h]arsus. 4세기에 양심적 성경 해석자로 가장 존경 받았던 인물이자 크리스스토무스의 스승),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레투스(Theodore of Mopsuestia, Theodoretus. 테오도르), 콘스탄티노플의 네스토리우스(Nestorius of Constantinople)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요한 크리스스토무스(John Chrysostomus. 크리스소스툼)도 이 학파에 속한다.

이 학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기독교론은 테오도레투스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상의 정신적 결합을 주장한 네스토리우스의 교리이다. 네스토리우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양성은 인간 예수 안에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

격적 통일체 안에서 각각 그들 자신의 질을 보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수의 인성은 신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θεοτόκος)라는 부르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인간의 어머니’(άνθρωποτόκος),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χριστοτόκος)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 때문에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독일의 두 교리사가 제이베르크(Seeberg)와 로우프스(Loofs)는 네스토리우스의 견해를 이단으로 정죄한 공의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네스토리우스가 자신의 용어를 지나치게 고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너무 날카롭게 분리하는 입장인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다.

2-3. 칼케톤 공의회(Concilium Chalcedonense. 451. 10. 8-11. 1일)

이 공의회는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교론에 대한 초대교회의 최종 결론을 내렸다.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네스토리우스가 “테오토코스” 교리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키릴루스가 그의 교리를 반대하는 내용의 회람서신을 수많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내었고,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로마의 총대주교(교황)에게 판결을 의뢰했다. 430년 로마 공회에서 교황의 동의를 얻은 후 키릴루스는 네스토리우스에게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네스토리우스가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31년에 제 3차 세계 공회가 에베소에서 소집되었다. 안디옥의 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431년 6월 22일에 키릴루스는 교황을 대신하여 공회의 개회를 선언했고, 당시 에베소에 와 있던 네스토리우스를 3번 소환했으나 참석을 거부하자 네스토리우스가 불참한 가운데 그를 주교 자리와 모든 교회 공직에서 제명할 것을 결정했으며, 참석한 198명이 이 결정에 서명했다. 황제의 사절단원들은 안디옥의 대표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회가 개최된 것에 항의했다. 늦게 도착한 43명의 안디옥의 대표자들이 대립 공회를 열고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은 다음 키릴루스와 에베소 주교 멤논(Memnon)을 제명했다.

그러나 3명의 교황사절이 도착한 후 기후는 바뀌어 안디옥의 총대주교 요한과 그 지지자들이 파문되었고 네스토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을 정죄하는 조항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는 황제에게 보내는 이 공회에 대한 적대자들의 보고서를 가로채는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사들에게 자신의 밀사를 보내어 그들을 선동함으로써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켜보려 했으나, 황제는 키릴루스와 멤논뿐만 아니라, 네스토리우스를 해임시키고 키릴루스와 멤논을 감옥에 가두는 정도에서 그쳤다. 얼마 후 키릴루스는 귀향을 허락 받았다.

그 후 단성론을 주장하다가 448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정죄된 유티케스를 키릴루스의 후계자인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코루스(Dioscorus)가 황제를 강권하여 에베소 공회를 소집한 후 유티케스를 복권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흔히 “강도 공회(Concilium latrocinium)”라 불린다. 이 공회의 결정에 대한 반론이 사방에서 빗발치자 다시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4차 칼케톤 공의회다. 600여명의 주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서방교회의 대표는 모두 7명으로 교황 사절이 5명, 아프리카 주교가 2명이었다. 23명의 주교가 작성한 칼케톤 신경이 채택되었다.

칼케톤 신경(Sybolium Chalcedonense)의 기독교론은 각각 이단으로 정죄된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의 중간 입장을 취한다. 전자는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적으로 양립한다는 양성론을 주장하는 반면에 후자는 두 본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단성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칼케톤 공의회 결정은 로마가 안디옥 학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알렉

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을 정죄한다는 뜻이다. 기독교론과 관련한 칼케톤 신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일치된 한 뜻으로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한 분이요 인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완전한 분이시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며, 또 합리적인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참으로 동일한 사람이시다.(θεὸν ἀληθῶς καὶ ἄνθρωπον ἀληθῶς τὸν αὐτὸν. Deum verum et hominem verum eundem ex anima rationali et corpore). 그는 신성에 따라서 성부와 동일본질이시며 또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동일한 동일본질이시다(ὁμοούσιον τῷ πατρὶ κατὰ τὴν θεότητα, καὶ ὁμοούσιον τὸν αὐτὸν ἡμῖν κατὰ τὴν ἀνθρωπότητα).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하시나 죄는 없으시다. 시간 전에[= 창세 전에] 신성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다(ἐκ τοῦ πατρὸς γεννηθέντα κατὰ τὴν θεότητα). 최근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인성을 따라 하나님의 어머니(θεοτόκος)이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신] 동일한 [인간이시다]. 하나의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님, 독생자이시다. 두 본성(φύσεις)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혼합되지도, 변화되지도, 나누이지도, 분리되지도 않는 것으로(ἀσυγχύτως, ἀτρέπτως, ἀδιαιρέτως, ἀχωρίστως) 인식된다. 본성들의 차이는 연합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각의 본성의 속성은 보존되며 한 위격(προσώπων)과 한 실체(ὑπόστασις)로 모여들며, 두 위격으로(εἰς δύο πρόσωπα) 분리되지도 나누이지도 않으나, 한 동일한 아들이요 독생자, 로고스 하나님(θεὸς λόγος),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선포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거룩한 교부들의 신조(σύμβολον)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밑 줄 가운데 위의 것은 삼위일체와 관련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론이고, 아래 밑줄은 기독교론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론이다. 하지만 이 칼케톤 신경으로 삼위일체 논쟁과 기독교론 논쟁은 종식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칼케톤 신경에 따르면 말씀이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전환되거나 변형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며, 둘이 하나 속에 흡수되거나 혼돈되어진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에 단순히 내주 하거나 둘이 외견상으로만 일시적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다. 즉 성육신이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 안에 실제적이고도 영속적으로 연합한 것을 의미한다. 성육신으로 로고스는 특수한 인간(반신반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인간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가진 이중적인 존재이거나, 신도 인간도 아닌 중간적 존재이거나, 혹은 제 삼의 본질을 가진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신성(신의 본성)과 인성(인간의 본성)을 한 실체 안에 함께 가진 분이시다. 즉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정통교리는 유티케스의 교리에 반대하여 성육신 이후에도 본질의 구분을 인정하되 양성은 변화나 혼돈 없이, 그리고 또 분리나 분할 없이 구분됨으로써, 신적 의지는 여전히 신적 의지대로 남아 있고 인간적인 의지는 여전히 인간적 의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 두 본질은 계속해서 하나의 동일한 생활을 하면서 삼위의 각 위들처럼 상호 교통을 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2-4. 아타나시우스 신조(Symbolum Quicumque 혹은 Symbolum Athanasi Fidei

Trinitatis = Athanasi Athanasi Alexandri. 420-450년 사이에 어거스틴의 추종자들에 의해 작성됨).

“그러나 우주적 신앙이란 이것이다: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한 하나님을 경배하되, 위격들을 혼동하지도, 본질을 분리하지도 않고 [경배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위가 다르고, 아들의 [위가] 다르며, 성령의 [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성은 하나이며, 영광도 동등하며, 그의 위엄도 동등하게 영원하다. ... 아버지는 결코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출생되지도 않으셨다. 아들은 성부로부터만 존재하시되,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않으셨으나 출생하셨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존재하시되],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출생하지도 않으셨으나, 발출하신다. 그러므로 세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이시며, 세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시며, 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어느 것도 앞서거나, 뒤서지 않으며, 어느 것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다. 전 삼위 자체가 함께 영원하시며, 함께 동등하다. 그러므로 이미 상술된 것처럼, 만물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경배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Fidei autem catholica haec est: ut unum Deum in Trinitate, et Trinitatem in Unitate veneremur; Neque confundentes personas: neque substantiam separantes. Alia est enim persona Patris: alia Filii: alia Spiritus Sancti. Sed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una est divinitas: aequalis gloria, coaeterna majestas. ... Pater a nullo est factus: nec creatus, nec genitus. Filius a Patre solo est: non factus, nec creatus: sed genitus. Spiritus Sanctus a Patre et Filio: non factus, nec creatus, nec genitus: sed procedens. Unus ergo Pater, non tres patres: unus Filius, non tres filii: unus Spiritus Sanctus, non tres spiritus sancti. Et in hac Trinitate nihil prius, aut posterius: nihil majus, aut minus. Sed totae tres personae coaeternae sibi sunt, et coaequales. Ita, ut per omnia, sicut jam supra dictum est: et Unitas in Trinitate, et Trinitas in Unitate, venerenda sit.)”

	Alexandria 학파 - 한 본성 즉 신성	Antioch 학파 -> 인성 중심의 두 본성
대표 신학자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오리게네스(Origenes. 오리겐),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 아리우스), 세 명의 캅파도키아 교부들(Basil of Caesarea, Gregorius of Nyssa, Gregorius of Nazianzus), 키릴루스(<->네스토리우스)	다소의 디오도루스 (Diodorus of Tarsus),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르 (Theodore[~doretus] of Mopsuestia), 존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신학적 특징	풍유적 신비적 성경해석.	역사적 문법적 성경해석.
	신비적 초자연주의적 경향(천상적 신) 예수 - 두 본성의 연합 -> 인성의 신성화 -> 신성+인성 = 단일한 신적 인성 -> 단성론(Monophysitism): 예수 안에는 하나의 본성 곧 인간의 본성을	역사적, 윤리적, 인격주의적 경향 (역사적인 인간 예수 -> 예수의 참된 인성과 실제성) 두 본성 구분 -> 두 그리스도(?) ->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

	흡수한 신적 본성만이 존재. 이 이론에 근거하여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θεοτόκος. 하나님을 임신한 자)라 부르는 개념이 가능하게 됨.	
대표적인 극단주의자 => 칼케톤 공의회에서 정죄된 교리. -> 유티케스는 칼케톤 공의회에서 아폴리나리스는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553년)에서 각각 정죄됨.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리스 (Apollinaris of Laodicea) - “한 아들은, 하나는 예배를 받게 되고, 하나는 예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된 신-로고스라는 한 가지 본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 최초로 “말씀-육신” 기독교론(말씀을 입은 것은 인간성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라는 이론. 이 이론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은 신적 로고스로 대체됨)을 주장. 유티케스(Eutyces) - 그리스도의 몸이 신격화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연합 이전에는 두 본성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우리와 동일본질이라는 것과 성육신 이후에도 두 본성이라는 것을 부인하여 이단으로 정죄됨. => 단성론	콘스탄티노플의 네스토리우스 (Nestorius of Constantinople) -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은 인간 예수 안에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 통일체 안에서 각각 그들 자신의 질을 보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수의 인성은 신성화되지 않았고 주장함.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어머니(θεοτόκος)라는 개념을 반대하였고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신성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성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인간의 어머니(άνθρωποτόκος)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χριστοτόκος)로 밖에는 달리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함. 이것 때문에 그는 이단으로 정죄됨.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레투스와 네스토리우스는 431년 에베소공의회에서 정죄됨. 독일의 두 교리사가 Seeberg와 Loofs는 네스토리우스가 부당하게 취급되었다고 변호함.
칼케톤 신조	정죄: 혼합되지도, 변화되지도 않음	정죄: 나누이지도, 분리되지도 않음

3. 계시란 무엇인가?: 성경의 권위

기독교 교리를 위한 최고의 권위 즉 최종적인 권위는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계시란 ‘진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리는 계시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진리를 친히 알려주신다.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누구이며 또한 우주 만물은 무엇인지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신의 계획과 목적 및 과정과 길도 제시하신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는 성경을 떠나서 진리와 구원의 도를 알 수 없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방법조차도 바르게 알 수 없다.

한 마디로, 성경은 기독교 교리와 삶을 위한 최상의 권위다. 따라서 성경 없이는 기독교 교리를 세울 수 없고 이단을 가려낼 수도 없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경(conon)이라 부른다. 척도를 의미하는 정경이 처음부터 확증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구약성경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완성되었고 유대교는 그것을 AD 90년 랍비들의 얄니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비준했는데, 기독교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약성경

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이단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수용되었다.

초대교회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대표적인 두 이단은 마르키온주의와 몬타누스주의다. 오늘날까지 본문비평적 사본학 논쟁의 원조로서 전자는 기록된 신약성경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편집하여 성경의 권위를 혼란에 빠뜨린 반면에, 후자는 기록된 성경의 간접 계시보다는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더 중시함으로써 성경의 권위 자체를 의심하고 무시했다.

3-1. 마르키온주의(Marcionism. 말시온주의; 마르시온주의)

마르키온은 초대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약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는 약 85년경에 폰투스(Pontus, 본도)의 시노페(Sinope)에서 감독의 아들로 태어나 주로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에서 자신의 사상을 가르치다가 약 16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도 부인했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육신의 부활 사상도 믿지 않았는데, 이런 점 때문에 종종 영지주의 철학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마르키온의 이단 사설은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이레네우스를 통해 논박되었다. 테르툴리아누스도 자신의 두 저술 <발렌티누스파 논박>(Adversus Valentinianos)와 <마르키온 논박>(Adversus Marcionem)에서 마르키온의 가르침이 가장 위험한 이단 교리라고 주장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마르키온은 “이단이 되기 전에 이미 신앙을 버린 인물”이었다. 카르타고 출신의 신학자에 의해 지적된 마르키온 이단의 심각한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미지의 선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실제 육체가 아닌 가상의 육체로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의 선하신 하나님을 구약의 창조주(=데미우르고스) 하나님과 분리함으로써 구약에 의존적이지 않은 신약성경만이 정경이라는 주장이다.

‘선하신 미지의 하나님’에 대한 테르툴리아누스의 반박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눌 수 없고, 창조의 신 데미우르고스에게 오랫동안 자신의 피조물을 맡겼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결코 별하지 않는 신이라거나 결혼금지와 같은 비인간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신은 선하신 하나님일 수 없다. 마르키온이 주장한 ‘선하신 미지의 하나님’은 존재 불가능하다는 것이 테르툴리아누스의 결론이다.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하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동일한 분으로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위한 선한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한다. 또한 구세주 그리스도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가상이 아닌 실제 육체로 인간이 되셨고 종말에 다시 오실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마르키온의 주장에 따르면,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인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ὁ δίκαιος θεός)으로, 신약의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ὁ αγαθός θεός)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분리했다. 그는 율법이 복음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무용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율법폐기론을 주장했다. 만일 마르키온의 주장처럼 신약의 하나님,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아버지가 심판이나 처벌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므로 구약의 무자비한 신과 다른 신이라면 결국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마르키온은 구약성경과 헬라주의 둘 다 거부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의존적이거나 헬라 사상적인 신약성경을 철저히 가려내어 배제했고 오직 누가복음과 바울의 10개 서신만을 정경으

로 인정했다. 마르키온이 인정한 바울서신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등의 순서로 편집되었다. 마르키온이 정경으로 인정한 신약성경도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모든 구약 인용 혹은 관련 내용을 제거한 후 새롭게 편집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역사상 최초의 신약성경 편집이라는 마르키온의 이단적 도발 때문에 초대교회는 신약의 정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공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레네우스는 70인역을 구약성경으로,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을 신약성경으로 받아들였고,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과 베드로전서와 요한 1서와 2서를 인용했다. 27권의 신약성경 목록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은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쓴 부활절 편지다. 그리고 교회가 신약성경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393년 hippo 교회회의와 397년 카르타고 교회회의를 통해서다.

3-2. 몬타누스주의(Montanism)

몬타누스주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거짓 계시 운동이다. 창시자인 몬타누스(Montanus)는 2세기에 소아시아의 프리기아(Phrygia) 지방에서 주로 활동한 예언 운동의 지도자였다. 그는 두 명의 여선지자 브리스가(Brisca = Priscilla, 브리스길라)와 막시밀라(Maximilla)와 함께 이 예언운동을 이끌었다. 이들은 세상의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면서 천상의 예루살렘과 천년왕국이 프리기아 지방의 두 도시 페푸자(Pepuza)와 티미온(Tymion) 사이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러한 몬타누스주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극단적 종말론운동, 지나친 성령운동 및 은사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혀 엄격한 금욕 생활을 요구했는데, 결혼을 금하지 않았지만 독신을 권장하고 재혼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의 생계를 위해 무가치한 물질을 모두 바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성적 욕구를 억제하고 금식을 멈추지 않도록 권했으며 순교를 피해 도망가는 것을 금지했다. 이처럼 육신적 금욕과 영적 열심을 강조했다. 이런 금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강조는 당시 교회의 세속화에 실망한 테르툴리아누스를 결국 몬타누스주의자로 개종시킨 주요 원인이었다.

몬타누스는 자신을 교회에 약속된 보혜사 성령(요 14장)의 소유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래된 계시를 무시하고 자신이 받은 새로운 계시를 중시했다. 새 계시의 새 언약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쉽게 거짓된 계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새로운 계시는 항상 모든 옛 계시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권위가 되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의 계시와 권위를 무시한다. 새로운 예언은 성경에 기초한 기존교회를 쉽게 무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언자를 일반 신자와 구별함으로써 교회 구성원 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교회 분열을 야기한다.

어느 시대나 항상 그렇듯이 새로운 예언 운동은 황홀경 즉 무아지경을 경험하도록 권장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영적 우월 의식을 조장하고 교회 안에서 영적 엘리트와 일반 신자를 차별한다. 이러한 차별이 교회를 은사적 계급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영적 엘리트들은 자신이 받은 새로운 계시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도록, 황홀경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 신자들을 위협하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영적 은사를 도구로 삼아 흑세무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든 신자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쉽게 거짓된 이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이단 마르키온주의와 몬타누스주의는 성경의 권위가 성경 자체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 계시역사와 정통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또한 인식하도록 분명하고도 충분한 반면교사의 역

할을 한다. 즉 성경의 권위는 계시역사와 정통교리를 통해 세워지고, 계시역사와 정통교리는 성경의 권위에 의존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

성경이 묘사하는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등이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보편교회”(ἡ καθολικὴ ἐκκλησία)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서머나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감독이 있는 곳에는 백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보편교회가 있다.” 그는 감독과 교회를,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간주함으로써 감독 즉 목사의 역할을 최대한 강조했는데, 이유는 감독을 사도의 계승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레네우스는 교회와 성령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지적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교회와 모든 은혜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장소는 진리의 기둥인 교회라는 의미다. 테르툴리아누스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시는 유일한 장소라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므로 점도 흠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순결과 금욕을 강조했던 몬타누스주의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그나티우스처럼 카르타고의 감독이자 아프리카 교회의 첫 감독 순교자 키프리아누스도 감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교회는 감독 안에 있고 감독은 교회 안에 있다. 누구든지 감독과 함께 있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요약하면 ‘감독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는 것이다. 교회가 박해로 수난을 겪는 시대에 살았던 키프리아누스는 ‘배교’ 문제에 직면했다.

노바티아누스(Novatianus)를 추종하는 노바티아누스파(Novatianism)는 교회의 거룩성을 잃지 않기 위해 배교자를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교자 없는 자신들만의 교회와 감독을 따로 세움으로써 교회를 분열시켰다. 키프리아누스는 그들의 교회를 보편교회로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감독은 보편교회가 인정하고 세운 감독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노바티아누스파 교회가 교리적으로는 사도적인 가르침을 계승한 정통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편교회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분리주의였다.

키프리아누스에게 교회는 오직 하나의 보편교회뿐이었고, 이 보편교회는 오직 전통적인 감독직 계승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바티아누스파는 배교자의 수용 여부로 교회를 판단함으로써 거룩한 교회 개념을 보편교회 개념보다 더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핑계로 보편교회로부터 스스로 이탈하여 자신들의 독자적인 감독을 세웠다. 키프리아누스는 보편교회를 배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감독직의 계승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편교회와 무관하게 따로 세운 그들만의 감독과 교회를 보편교회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키프리아누스의 가장 유명한 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문구에서 ‘교회’는 바로 ‘보편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한 ‘감독 없이는 교회도 없다!’라는 문구의 ‘감독’ 역시 ‘보편교회의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키프리아누스에게 참된 교회는 보편교회뿐이었고, 참된 성례와 구원의 수단 역시 그와 같은 참된 보편교회를 통해서만 시혜될 수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북아프리카 교회도 배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문제의 진원지는 도

나투스(Donatus)의 추종자들이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있었던 대박해 시기에 투옥과 고문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신자들은 박해가 끝난 후 감독단이 임명한 카르타고의 감독을 거부하고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감독을 세웠는데, 이 감독이 바로 도나투스였다. 이 사건은 313년에 일어났고 임명된 감독을 그들이 거부한 이유는 그 감독단 가운데 한 명이 배교자였기 때문이다. 이후 도나투스는 순교자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도나투스파는 배교자가 세운 감독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배교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배교한 감독이 집례한 모든 성례는 무효한 것이었다. 예컨대 배교한 감독이 베푼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세례가 무효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은 감독에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도나투스파는 성례의 효력이 집례자의 성결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도나투스파에 의해 분열된 북아프리카 교회는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의 아우구스티누스 시대까지 배교 논쟁을 지속했다.

도나투스파 논쟁으로 북아프리카의 수많은 교회가 도나투스파가 되었고 도나투스파 감독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의 권위를 내세웠다. 왜냐하면 키프리아누스는 노바티아누스파 교회가 보편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했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나투스파가 보기에는 바로 그러한 요구가 자신들의 재세례 요구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키프리아누스가 재세례를 요구한 것은 그가 노바티아누스파 감독과 교회를 보편교회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키프리아누스의 요구와 도나투스파의 요구는 형식적으로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즉 교리적으로는 구분되어야 한다. 키프리아누스가 재세례를 요구한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노바티아누스파 교회 전체였던 반면에, 도나투스파가 재세례를 요구한 대상은 배교자 감독에게 세례를 받은 교인 개개인이었다. 키프리아누스의 경우는 하나의 보편교회를 분열시키는 노바티아누스파의 분리주의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던 반면에, 도나투스파의 경우는 배교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바티아누스파와 도나투스파는 둘 다 자신들의 교회를 순교자들의 교회 즉 '점도 흠도 없는' 순결한 지상교회로 간주함으로써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분리주의자들이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가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분리주의자들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교리적 문제점도 정확하게 간파했다. 이것은 성례의 효력이 집례자의 개인적 경건에 달린 것으로 생각한 도나투스파의 잘못된 교리다. 도나투스파에게 최상의 교회 표지는 '순결'이었다. 그들은 순결을 지키고 계승한 자신들의 교회만이 참 교회이므로 이러한 순교자들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도나투스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할 것, 즉 재세례를 요구했던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의 효력이 집례자의 경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믿음에 달린 것이라고 바르게 교정했다. 또한 교회의 거룩성도 교회의 지체인 교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진실한 신자와 위선자가 섞여 있는 혼합체(corpus permixtum)이기 때문에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히 거룩한 상태일 수 없다. 즉 모든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이고, 점도 흠도 없는 교회는 오직 천상교회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시적 교회인 지상교회를 불가시적인 교회인 천상교회와 구별했던 것이다. 키프리아누스처럼 그도 역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단호하게 가르쳤는데, 이 교회는 하나의 보편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키프리아누스와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를 참된 보편교회로부터 배제하지 않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신비한 몸”이며, 따라서 교회의 통일성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다.

5. 구원이란 무엇인가?: 은혜

구원과 구속은 해방, 자유, 회복, 화해, 영생 등을 의미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Pelagius)와 논쟁하기 전까지는 개인의 구원 문제가 신학적 관심 주제가 된 적이 없었다.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논쟁 이전까지는 기독교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통한 전체적이고 집단적이며 유기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 논쟁 이후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경향이 강력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근거로 인간의 구원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우리는 양쪽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하나님에 의해 우리 안에 부여받았다. 즉 그것은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뿌리와 같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산출하고 생산한다. 가꾸는 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덕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 수도 있고 악의 가시덤불로 가득 채울 수도 있다.”

이처럼 펠라기우스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타락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 개인의 구원 문제는 오직 그 자신에게만 달렸다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조차도 개인적인 것이므로 그의 타락과 죄가 전가된다거나 유전된다는 개념은 그에게 어불성설이었다. 당연히 원죄 개념도 있을 수 없고, 오직 개인의 자발적인 범죄뿐이다. “우리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원인이 되는 선과 악은 전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계발되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의 행동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만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의 능력”이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의미하는데,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받은 중립적인 자유의지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는, 마치 ‘백지상태’(tabula rasa)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구원 문제를 철저히 인간의 자유의지, 즉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으로 파악한 펠라기우스와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린, 즉 하나님 자신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예정론 즉 선택론이다. 이것의 단짝은 은총론 즉 은혜론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구원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달리 펠라기우스에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바로 이것 자체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라고 본 것이다. 또한 펠라기우스에게 예정은 하나님의 예지와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다는 것이다.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구원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모든 책

임도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구원의 공로도 그것을 선택한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창조 이후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기다리시면 된다.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한 것은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 즉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 아래,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뒷짐만 지고 계시면 그들 모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posse non peccare), 타락 이후에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non posse non peccare)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펠라기우스에게 구원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펠라기우스에게 구원은 인간의 공로다.

구원이 인간의 선택과 공로의 산물이라 주장하는 것을 펠라기우스주의(Pelagianism)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의 합작품이라 주장하는 것을 반(半)-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라 부르는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아우구스티누스주의(Augustinianism)로 정의된다. 루터의 '오직 믿음'(Sola fide) 이라는 이신칭의 교리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오직 은혜'(Sola gratia)를 재현한 것이므로 종교개혁은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승리,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Salus sola gratia Dei!)이라는 은혜의 승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중세 천년을 지배한 사상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였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공로사상을 빚어낸 일등공신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중세 천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기독교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원론의 사상적 주류는 아우구스티누스주의가 아니라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신자들은 구원을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로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상호 협력하여 만들어진 합작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아르미니우스주의(Arminianism)도 여기에 속한다.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구원론 이단들도 모두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사생아들이다.

*초대교회 이단들과 오늘날 이단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